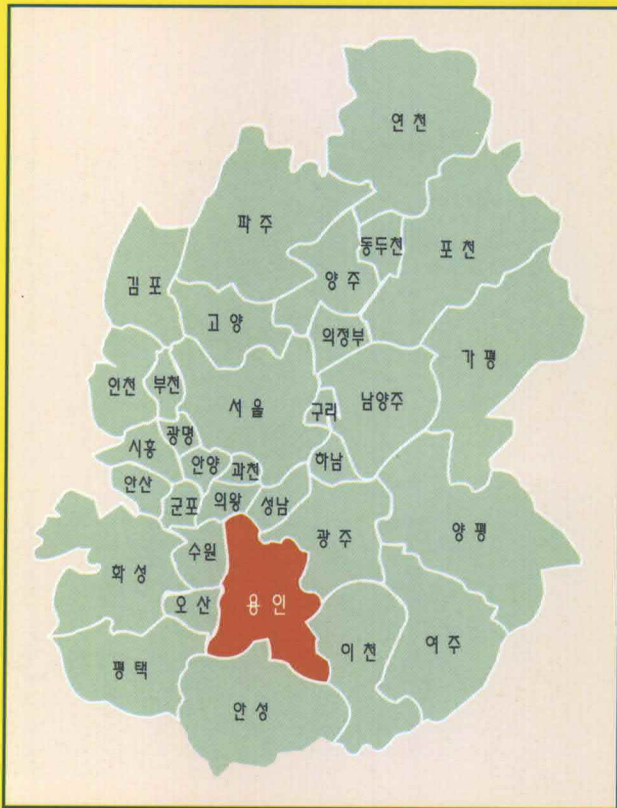


용인시

두레싸움

동화놀이

타맥놀이



두레싸움

1. 전승지

용인시 기흥읍 서천리 · 농서리

2. 유래 및 해설

이 놀이는 수백 년 전 부터 성행해 내려오다가 일제시대와 6.25사변을 거치면서 때때

로 중단되기도 했으나 50여 년 전까지만 해도 힘들고 일손이 모자라는 농사일을 하면서 협동과 단합을 목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져 오다가 그 이후 사회구조의 변화와 개인주의의 팽배로 중단상태인 것을 다시 발굴 재현한 것이다.

이 두레싸움은 들일을 하려고 아침 일찍부터 일터로 나간 서그내 마을과 용숫골 마을 두레가 서로 만나 인사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이해와 의견 차이로 싸움이 벌어지는데, 상대방 두레의 기장목을 뽑음으로써 승패를 가리는 민속놀이의 일종이다. 특히 싸움중 손해 본 물품들에 대해서는 보상해주고 형제의 의를 맺고 농요를 서로 부르며 성황당에 고사하고 합굿을 치며 한마당 놀이판을 벌여 두 마을이 화합 단결해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간다는 내용을 이 놀이는 담고 있다.

3. 구성 및 줄거리

이 민속놀이는 고사 두레싸움 농요 및 새참 합굿 형제에 예유 끝마당 등 여섯 마당으로 구성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용기(龍旗)를 온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꽂아놓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게 징이나 북을 울린다. 이는 두레가 나간다는 뜻을 알리는 것이다.
- 두레가 나가기전 도랭이 등을 땅바닥에 깔아놓고 술을 부어 그날의 안녕을 간단히 빌며 공손히 절을 하고 고씨네(고시래)를 한다.
- 서그내 두레와 용숫골 두레는 모를 심어서 시퍼렇게 자란 들판으로 김을 매고 잡초를 훔치러 들로 나간다.
- 서그내 두레패가 들판으로 일하러 농악을 치며 나가다 저멀리 나오는 용숫골 두레와 조우한다.
- 서그내 두레는 용숫골 두레를 보고 점고를 울린다.
- 용숫골 두레는 서그내 두레의 점고소리를 듣고도 반점고로 답하거나 아예 무시한다. 이는 서그내 두레의 연륜과 그 구성인원에 대해 잘 모르므로 무시한다는

태도이다.

- 이에 기분이 상한 서그내 두레에서는 일꾼들 중 장정 2~3명 정도를 용숫골 두레패에 보내 섭섭함과 아울러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 용숫골 두레패들은 서그내 두레패의 사과 요구를 묵살하고 더 노골적으로 욕설과 함께 적대감을 표시하며 찾아온 장정들에게 모욕과 함께 싸움을 건다.
- 이에 용숫골 두레를 찾아간 건장한 일꾼들은 돌아와서 이 사실을 낱낱이 고하고 바쁜 일을 못해 품을 매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 기회에 버릇을 가르쳐야 한다고 의견을 좌상에서 고한다.
- 좌상은 서그내 두레패 구성 일꾼들에게 의견을 하문한다.
- 구성 일꾼들은 돌아온 장정들의 의견대로 이번 기회에 혼을 내서 버릇을 단단히 가르치자고 의견일치를 본다.
- 서그내 두레패들은 농악을 쳐 힘을 과시하고 도랭이와 연장들을 한곳에 내려놓고 일꾼들 일부는 농기주위를 둘러싼다.
- 이에 상대방 용숫골 두레패도 자기들이 싸움을 걸고 각오한 바가 있어 서그내 두레패와 똑같은 행동을 해 방어 태세와 공격 태세를 갖춘다.
- 서그내 두레패 중 30여 명 이상의 장정들의 용숫골 두레에 기를 향해 돌진한다.
- 상대방 두레패의 장정들도 같은 행동으로 돌진하여 양 두레패는 중간지점에서 대결하며 힘겨워 싸우다가 일시 물러난다.
- 이에 물러나 제자리로 돌아온 쌍방은 작전을 숙의하고 서그내 두레패는 10여 명 인원을 더 보강하여 재빨리 상대방 두레패에 보다 더 접근하여 재대결한다.

- 이에 승부가 나지 않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서그내 두레패 장정들은 이번엔 인원을 훨씬 더 보강하여 세번째 돌진하여 밀고 밀리다가 용솟골 두레패 기장대에 날새고 힘센 젊은 장정들이 기어 올라가 기장목을 뽑아 서그내 두레패 일꾼들에게 던져서 건네준다.
- 기장목을 받은 서그내 두레패 장정들은 자기네편 일꾼들의 호위를 받으며 서그내 일꾼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와 좌상에게 올린다.
- 기장목을 빼앗기고 싸움에 패한 용솟골 두레패 일꾼들은 땅에 주저 앉아 서러움과 분함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는 장정들도 있다.
- 용솟골 두레패의 좌상은 일꾼 장정 2~3명을 대동하고 서그내 두레패 앞으로 와서 좌상에게 예를 올리고 자기들이 싸움에 패함을 승복하고 아우가 되기를 청한다.
- 이에 서그내 두레패의 좌상은 자기 두레패 일꾼 장정들과 상의해 의견일치를 보고 이를 흔쾌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형제의 두레패가 되기를 약속하며 하늘에 고한다.
- 서그내 두레패는 싸움중에 부러지고 찢어진 물품(풍물 포함)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여 주기로 약속하며 뽑아온 상대편 기장목을 좌상에게 돌려준다.
- 양 두레패의 좌상들은 돌연한 다툼으로 인하여 품을 매고 일을 못한 섭섭함과 형제의 의를 맺은 기쁨을 누를 길 없는 처지라 하여, 곡식이 자라는 파란 들판을 보고 다같이 농요를 부르며 동네 어귀 성황당에 각자 가져온 작은 돌을 던져 쌓고, 동네 아낙들에게 급히 연락하여 참

- 외, 수박과 밀떡 등을 부쳐 진술한 대풍과 무병장수를 빌며 고사를 지낸다.
- 위 행사를 마친 쌍방 두레패는 합굿을 치며 아이들 무동을 태우고 흥을 돋우며 주위를 돈다.
- 다른 일꾼들은 동네 아낙들이 장만해 온 막걸리와 안주를 조롱바가지로 퍼먹으며 각자의 장기자랑을 한다.
- 합굿을 치며 놀이판 한마당이 끝나면 내려놓은 도랭이와 연장을 챙기고 용솟골 두레패는 서그내 두레패가 지나가는 길을 기폭으로 맨땅을 쓸어주고 일꾼들은 양쪽으로 읍하고 도열하여 아우의 예를 표하고 서그내 두레패가 다 지나갈 때까지 배웅한다.
- 서그내 두레패와 용솟골 두레패는 헤어져 자기들 마을에 당도해 한바탕 흥을 돋운 다음 끝을 낸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만부득이 상대방과 다툼이나 의견 충돌이 있어도 자기의 악함과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면 승자는 아량을 베풀고 패자는 승복한다는 기질이 대대손손 내려오고 있다. 또한 상대방에게 고의든 아니든 피해가 있으면 꼭 손해를 변상해 주며 잊어른을 공경하는 장유유서의 정신이 투철하고 더더욱 돈독한 우의로 협동단결하여 이웃사랑 나라사상을 몸소 실천함으로써 5천 년 유구한 역사를 단일민족으로 이어왔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4. 출 연

- 1) 종 목
민속놀이

2) 명 칭

두레싸움

3) 소요시간

25분

4) 출연인원

150명

5) 발굴 및 채집장리

김문향

6) 발굴장소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서천리(서그네)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농서리(용숫골)

■ 고 증(1995년)

송 재 권 : 용인문화원장

이 인 영 : 향토사학자

노 승 식 : 전통문화발전위원회회장

권 태 준 : 용인군 기흥읍 서천리

권 영 국 : 용인군 기흥읍 서천리

오 중 선 : 용인군 기흥읍 서천리

김 학 고 : 용인군 기흥읍 농서리

김 영 식 : 용인군 기흥읍 농서리

고 종 열 : 용인군 기흥읍 농서리



동해놀이

1. 전승지

용인시 내사면 한터마을

2. 유래 및 해설

이 놀이는 6.25를 전후 해서 잊혀졌던 것으로, 경기도 민속예술경연대회를 계기로 하

여 다시 발굴됨으로써 자칫 세인의 망각 속에 사라질 뻔한 향토문화의 뿌리를 재현한 것이다.

동해놀이는 달집(동해)을 불태우면서 풍요와 다산을 뜻하는 정월 첫보름의 달맞이와 함께 가족의 무병장수, 부귀다남, 더 나아가서는 국태민안과 태평세속에 풍년을 기원하는 놀이로 함축되고 있다.

이 놀이는 대동제의 성격으로부터 출발, 열



나흘날 산신제를 올리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정월 보름날 동해놀이로 이어진다.

동해놀이는 다시 길놀이 고사반 줄다리기 뒷풀이로 구성되는 바, 민속예술의 경연에 출품되는 대개의 민속놀이가 윤색 연출되거나 현대화되어 나타나는 추세에 비한다면, 이 놀이는 원초적인 모양을 간직한 순수한 놀이라고 하는 데에서, 민속적이고 토속적인 향취를 찾을 수 있다 하겠다.

특히 마을의 남녀노소 모두가 자기 나이 수대로 매듭을 지은 햇대(햇불)를 태우면서 마을과 가정의 안녕과 태평, 벽사진경, 다산과 풍요를 발원하고 새해벽두의 어둠속에 광명을 비추는 보름달을 향하여 각자의 소원을 빈다. 때묻고 얼룩진 지난날의 모든 불운, 병마, 액운을 불태움으로써 매년 거듭나는 새로운 삶을 추구했다는 점, 그리고 이웃과의 갈등이나 가정의 불화, 개인적인 감정까지도

해소하고 누적된 고뇌와 번민 등의 부담을 떨쳐버린다는 의식적인 행사의 성격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햇대가 타다 꺼지거나 하면 무당을 찾아 빌기도 하였다.

동해는 글자 그대로 온마을을 비출 수 있는 규모의 햇불로서, 이 마을 대표 노인현씨에 의하면 그 크기는 높이가 30여 척(8~9m)에 직경 십오륙척(3~4m)에 달했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상층부에 점화하면 나뭇단이 성화처럼 밤새도록 타서 온마을을 비췄다고 한다.

마을대표의 고사반에 이어 동해의 불빛이 충전하면 사람들 각자가 추구하는 모든 소망을 빌고 나서 단결과 화합의 장으로 이어지는 용줄 줄다리기와 뒷풀이로 대미를 장식한다.

대동 줄다리기는 경기지방 여러 곳에서 행해졌고, 특히 용인 지방에서는 정월 보름날 마을마다 행해졌던 대충화된 놀이였으나, 한



터의 용줄 줄다리기는 동해와 고사반, 길놀이, 뒷풀이 등이 합성되어 그 내용과 구성면에서 볼 때 대중화된 단순한 줄다리기 놀이와는 성격상 그 궤를 달리하고 있다 하겠다.

3. 구성 및 내용

1) 놀이내용(준비)

(1) 동해 만들기

- 마을청년들은 약 한 달 전부터 나무 추렴을 한다. 온마을을 밝힐 동해를 만들기 위해서이다.
- 추렴은 한 가구 한 짐씩이거나 마을 공동작업을 실시하여 마련하기도 하며 청장년이 한 짐씩 책임지기도 한다.
- 나무는 잘 타는 나무, 건조가 잘된 나무를 추려 칩닝쿨로 작은 동(다발)을 짓는다.
- 이렇게 만든 나무 동은 다시 여러 개로 합쳐진다. 이런 준비가 되면 마을 한가운데 서너 개의 커다란 기둥을 박고 불에 타는 도중 쓰러지지 않도록 연결하거나 받침목을 세운다.
- 동해의 크기는 높이 8~10m 둘레 4~5m에 이르며 불을 붙이면 온마을을 비춘다.

(2) 햇대 만들기

햇대는 가구원 수대로 각자가 만든다. 비교적 길이가 길고 꼳꼳한 조(스승)대나 삼(麻)대에 불이 잘 붙는 섯을 골라 함께 묶는다.

- 햇대는 짚으로 묶는데 매듭은 각자 자기 나이 수대로 한다.
- 이렇게 준비된 햇대는 습기가 있는 곳을 피하여 통풍이 잘 되는 추녀 끝이나 헛간

에 두었다가 이날 사용한다.

(3) 용줄(다림줄)만들기

- 역시 정월 초하루부터 두레패가 마을을 순회하며 농가를 들러 두레를 친다. 두레는 각 농가의 고사반을 하여 잡귀를 쫓고 맑은 샘물이 솟아 나도록 하는 의미를 지닌다.
- 두레패(농악)의 뒤에는 빈 지계를 진 마을 사람 몇 명이 지계 장단을 치며 따라다닌다.
- 두레패가 농가에서 나올 때 농가에서는 미리 다듬어 놓았던 좋은 짚단을 몇 단씩 내놓는다.
- 빈 지계를 지고 뒤따르던 사람들은 이것을 모아 한 짐 가량이 되면 다림줄을 만들 작업장소로 운반한다.
- 용줄 만들 짚이 마련되면 동아줄을 틀기 시작한다. 여러 사람들이 각기 튼 동아줄을 다시 두세 가닥씩 합쳐서 용줄을 만든다.
- 용줄은 암·수 두 가지 형태로 만든다. 이때 암·수가 볼 수 없도록 떨어진 마을에서 제작한다. 암줄의 용두는 원형이며 직경 1~2m, 숫줄의 용두는 타원형으로 암줄 용두에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이다.
- 암·수 용줄에는 젓줄(혹은 곁줄, 당김줄)을 붙인다. 일명 지네다리라고도 하며 길이는 각각 30m 내외가 된다

2) 놀이과정(줄거리)

(1) 산신제(당산제)

- 놀이가 있기 전날(정월 열나흘날)밤 뒷산(구례산)에 올라가 산신제를 드린다.
- 제주는 덕망 있고 부정이 없는 사람을 추

대한다.

- 제주로 추대된 사람은 삼일 전부터 목욕 재계하고 근신한다.
- 쯤날에는 서말 서되의 떡을 빗고 황소 한 마리를 잡아 각을 떠서 제물로 사용한다.
- 산신제는 국태민안, 질병퇴치, 풍년기원, 마을사람들의 무병장수와 다산다복을 기원한다.

(2) 동해놀이(정월 보름날)

- 달이 뜨기 전 마을 복판에 세운 동해 주변으로 사람들이 운집한다.
- 사람들은 미리 준비해 두었던 햇대를 들고 나온다. 마을 대표가 동해에 간략한 제를 올린다. 고사 및 무희가 어우러진다.
- 제가 끝나면 달돋이와 함께 동해에 불을 붙인다. 이때 달님에게 절을 4배한 후 각자 가져온 햇대에 불을 붙여 달을 향하여 상하로 흔들면서 “달님절아! 달님절아!”를 외치며 각자 소원성취를 기원한다.
- * 달님절아는 달님전하의 변형으로, 달님, 햇님의 높임말에 왕을 호칭하는 전하를 붙인 것으로 추정된다.
- 만일 동해에 불이 잘 타지 않으면 불길한 징조라 하여 재판은 의관을 정제하고 성



황당이나 당산에 올라가 별도의 제를 올리거나 굿을 하기도 한다.

- 동해불의 불빛이 충천하여 그 빛이 온마을을 비추면 잡귀와 액운을 모두 물리친 것이된다.
- 동해와 달님에게 소원성취를 비는 놀이가 끝나면 마을 사람들은 두 갈래로 갈라져 암·수 용줄(다림줄)을 운반해 온다.
- 두레가 이들을 인도하여 마을을 한 바퀴 돈 다음 암용(암줄)에는 15세 이하의 사내아이와 부녀자들이, 숫용(숫줄)에는 남자성인들이 편을 갈라 선다.
- 놀이가 시작되면 처음으로 선을 보인다. (놀이 이전에 선보이는 것은 금기 사항임) 전통혼례 방식대로 암용 측에서 먼저 세번 예를 올리면 숫용 측에서 두 번 절을 하여 답례한다.
- 암용과 숫용이 결합하기 전 약간의 유희가 진행되는데 암용은 숫용을 피하여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합(합궁)한다.
- 암수가 결합하면 그 사이에 장목(비녀)을 끼워 빠지지 않도록 한다.
- 줄은 세번 당기는데, 두번 이기는 쪽이 승리하게 된다. 숫용이 이기면 흉년, 암용이 이기면 풍년이 든다고 믿는다.
- 대개 힘센 남자편이 이기게 되므로 여자 측에서는 지지 않으려고 줄끝에 말뚝을 박는다.
- 그래도 끌려가게 되면 노인들이 숫용의 힘센 장년을 끌어내기도 하고 더 많은 인원이 여자쪽에 가세하여 결국 여자측이 이기게 된다. 이는 여자의 생산 능력(출산)을 존중하는 상징적인 의미로서, 생산과 풍요를 이끌어내는 힘임을 암시적으로 표출시키게 되므로, 항상 여성쪽이 이기게 되도록 전제된 놀이이기도 하다.

- 줄다리가 끝나면 동해를 중심으로 흥겨운 유희로 뒷풀이를 한다.

3) 놀이 구성

(1) 길놀이

- 영기(令旗)를 앞세우고 농악(두레)의 칠채가락에 맞추어 암·수 용줄이 정해진 위치로 자리를 잡는다. 이때 길군악, 길놀이를 한다.

동 해

암 줄

수 줄

(2) 동해 고사반

- 사람들이 동해 주변으로 모여들면 동해 앞에 주, 과, 포를 진설한 후 마을 대표가 간단한 제를 올린 후 상쇠의 쇠가락에 맞추어 고사창을 하며 무희들이 어우러져 춤을 춘다.

(3) 달님맞이 불농기

- 고사창이 끝나고 보름달이 뜨면 마을 사람 중 한 사람이 동해에 올라 불을 당긴다.
- 농악이 동해 주위를 돌면 아낙네들과 아이들은 햇불을 밝혀서 달에게 소원성취를 기원한다.

(4) 용의 혼례 및 줄다리기

- 상쇠의 신호로 농악이 용줄있는 쪽으로 사람들을 인도한다.
사람들은 용줄을 메고 중앙으로 나온다.
- 암용 위에는 흥장수 한 사람이, 숫용에는 청장수 한 사람이 타고 지휘한다.

- 서로 마주치면 혼례를 올린다. 숫용은 암용의 용두에 끼우려고 하고 암용은 이를 피하려 하며 실랑이를 벌인다.
- 용줄이 마주치면 합궁을 하게 된다.
- 암수줄이 제자리에 놓이면 비녀목(장목)을 끼워 연결한다.
- 합궁 후 환희의 마당놀이를 한판한다.
- 용줄당김을 세판 한다. 이때 암용이 이기도록 전제되어 있다.

(5) 뒷풀이

- 뒷풀이는 농악의 장단에 맞추어 암용을 메고 흥겹게 춤을 추다가 상쇠의 인도로 퇴장한다.

동해 줄다리기는 동해제, 달림절(달님맞이), 용싸움, 줄다리가 합성된 놀이다. 대개의 민속놀이가 윤색되고 현대화되어 재현되는 추세에 비한다면 동해놀이는 원초적인 모양을 간직한 것으로서 민속적 가치가 지대하다고 생각된다. 농악(두레놀이) 구성도 경기 지방의 전통가락인 웃다리 두레농악을 치고 있어 민속의 보존 차원에서 출품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며 남존여비사사이 존재한 시대에도 남과 여가 동등한 자격으로 이루어지는 놀이로서 좀더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사료된다. 이 놀이를 온마을 사람들이 모여 함으로써 자부간, 고부간, 부모형제간 모두 어우러져 춤을 추며 즐기는 것이 이날만 허용되었다고 한다. 또한 줄다리를 통한 한고을의 단결과 화합의 판이라 할 수 있다.

4. 출 연

- 명 칭: 용인 동해놀이
- 종 목: 민속놀이
- 소요시간: 30분
- 출연인원: 370명

5. 발굴 및 채집정리

- 발굴 장소: 경기도 용인군 내사면 한터
- 자료 조사 및 발굴
백암종합고등학교 교사 노승식
- 고증
한국민속촌 대표 맹인재
용인문화원 원장 송재권
- 연출 및 구성
총연출 및 구성지도 노승식
- 참여
· 백암종합고등학교
- 백암국민학교
- 백암노인회
- 서천농악대
- 외사면 부녀회
- 기흥농협 부녀회
- 용인전통문화발전위원회 회원

타맥 (打麥) 놀이

1. 전승지

용인시 이동면 묘봉상리

2. 유래 및 해설

옛부터 우리 민족에게는 보리고개라 불리우는 빈곤한 춘궁기가 있었다.

이 때는 음력 3~4월경으로 보리를 타작해서 수확을 얻기 전이고 쌀도 떨어질 때이며 기타의 작물도 전부 떨어질 때로 초근목피로 연명할 시기이다. 이러한 때를 맞아서 보리를 타작하는 이 노래는 얼른 보리를 타작해서 보리떡이나 보리죽이라도 온식구가 둘러앉아 마음껏 포식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온동리가 모두 모여서 흥에 겨운 한마당의 잔치 분위기에 젖게 된다.

논농사의 노동요는 계절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 보리농사의 노동요는 유독 이 타맥요(打麥謠)만 나타나는 것을 보아도 굶주린 배를 움켜잡고는 흥도 노래도 나타날 수 없다는 단순한 원리를 접하게 된다.

이러한 시기에 가득 기대감에 부풀어 이 보리타작의 한마당이야말로 기대감에서 오는 흥분과 술렁임으로 소리와 함성, 흥과 춤의

한마당이 아닐 수 없으며 더욱 타작을 하는 집에서는 겨우내 아껴두었던 식량으로 밥도 짓고 술도 담구어 온동리의 사람에게 대접을 했던 것을 생각하면 단순한 작업의 능률을 올리자는 논농사의 노동요의 뜻과는 또다른 일면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타맥요는 이제 경기지방에서는 거의 그 자취를 감추고 있으며 단지 구전(口傳)에 의해서 한두 마디씩 전해지던 사설(辭設)을 정리한 것이다.

3. 구성 및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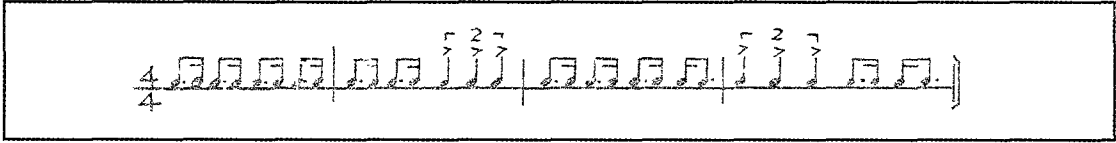
1985年 10月 4日 제 4회 경기도 도지사 기생탈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가한 용인군 이동면 묘봉상리 부락을 주축으로 이루어진 타맥요의 연희방법 및 기타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연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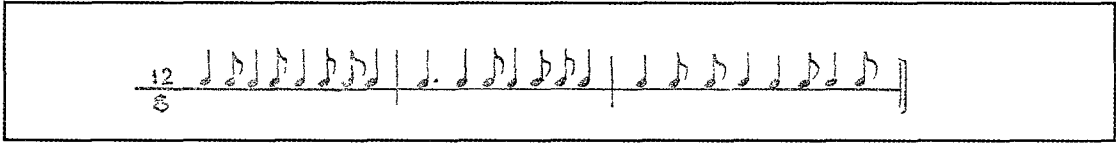
농기때에 따라선 연희명기(演戲名旗)와 북을 맨 선소리꾼을 앞세운 일동이 입장하면 잦은 가락에 맞추어 어깨춤을 추면서 연희장의 한가운데에 보릿단을 깔아놓고 도리깨질꾼들이 그 주위를 돌며 동리의 아낙네들이 흥겹게 어깨춤을 춘다.

타작을 하는 주인 영감이 “자 이제 태질을

악보 1 : 잣은가락



악보 2 : 삼채장단



시작하세”하고 외치면 “어허야”의 소리에 맞추어 잣은가락을 치고 절구를 뉘여 놓고 절구공이를 양편을 받쳐 움직이지 않도록 한 다음 그 위에 보릿단을 내리치는 태질을 시작한다. 태질은 2명이 잣은가락에 맞추어 선소리와 후렴을 하면서 교대로 내리치게 된다.

어느 정도 태질이 되었으면 주인 영감이 “자 이제 태질이 어느정도 되었으니 도리깨질을 하여 보세”하고 소리치면 일동이 “네”하고 대답하며 도리깨를 치켜든다. 이때는 선소리꾼이 잣은가락의 북장단을 몰아 그치고 삼채장단을 치며 선창을 부르면 모든 이들이 후렴을 받으면서 도리깨질꾼들은 빙 둘러서서 한 사람씩 건너서 한편은 선창 부분에 한편은 후렴 부분에 도리깨를 내리치고 동리 사람들은 그 주위를 돌며 각자 허튼춤을 춘다.

보릿단을 한참 두드리다가 주인 영감이 “자 이제 쉬었다하세”하고 외치면 도리깨질꾼과 태질꾼은 물러서서 술을 한 잔씩 마시고 그 동안에 아낙네들이 모여들어 보릿단을 까부르기도 하고 술도 한 잔씩 퍼주며 흥겹게 노래를 한다. 선소리꾼이 “자 이제 비도

울 것 같고 하니 우리 빨리 끝내고 쉽시다”하고 외치며 다시 도리깨질을 시작하면 이때는 잣은가락에 맞추어 사설과 후렴이 빨라진다. 한참을 도리깨질을 하다가 선소리꾼이 “취 보리난다”하고 외치면 노래는 멎고 도리깨질은 그 속도를 빨리하면서 모든 이들이 “어이차” “쳐라” “넘겨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타락 마당의 흥은 절정에 달하게 되고 부서진 보릿단은 도리깨에 말려 올라가 주위에 나부끼며 한창 흥이 고조된다.

다시 주인 영감이 “자 이제자루에 담아보세”하고 소리치면 녀가래,싸리비,갈퀴 등을 가진 동리 사람들과 아낙네들이 모여들어 여차 여차 소리치며 보릿단을 모아들이고 한쪽에서는 흥에 겨운 춤을 춘다. 이러한 타맥요의 노래에서 오는 흥으로 누구나 다 동화되어 즐길 수 있는 동리의 한마당부락축제(部落祝祭)의 성격을 띠고 있다.

2) 타맥요의 사설

(삼채장단)

어허야 보리로다

(후렴) 어허어허 어허야

옥신옥신 보리로다
 힘을주어 후려치세
 사정없이 후려보세
 늘보리나 쌀보리나
 사정없이 후려보세
 바서지게 후려보세
 이보리를 다털어서
 나라에도 봉사하고
 이보리를 다털어서
 아침방아로 한번짚고
 저녁방아로 두번짚어
 세번네번 거듭짚어
 맷돌에다 들들갈아
 보리가루 만들어서

보리개떡 보리죽을
 온식구가 다먹는다
 이보리를 다바수어
 아침방아로 한번짚고
 저녁방아로 두번짚어
 보리개떡 만들어서
 온식구가 다먹는다
 여기도 후려보고
 저기도 후려보세
 이 보리가 휘보린가
 김서방네 보리로세
 얇은마당 깊어지고
 깊은마당 알아지고
 잘도한다 잘도한다

■ 타맥요의 선율

삼채장단

짚은장단

우리일꾼 잘도한다
부서지게 후려보세
힘을주어 후려보세

- 녀가래 : 1명
 - 아낙네들 : 10명
- 계 38명
지도·재현·교증 : 하주성

(жат은가락)

이 보리가 (후렴) 어허야
뉘보린가 김서방네 보리로세
문질러보세 곁보리를
높은데는 팡팡치고
낮은데는 가만가만
왕개춧심 거꾸로 잡고
옥신옥신 뭉게보세
쌀보린가 늘보린가
옥신옥신 후려보세
어떤사람 팔자좋아
일인하고 잘사는데
우리같은 인생들은
무슨팔자로 땅을내나
보리대를 털어내라
보리대를 털었으면
붓대질을 하여보세
아하야 보리로다
어허야 보리로다

4. 출연 인원

- 선소리꾼 : 1명
- 주인영감 : 1명
- 깃대잡이 : 1명
- 도리깨꾼 : 10명
- 태질꾼 : 2명
- 지계꾼 : 2명 (1명은 뒤집기를 맡고 1명은 붓대질을 한다)
- 갈퀴잡이 : 1명
- 싸리비 : 1명